『한국민족문화』 92, 2025. 11., 3~31 http://doi.org/10.15299/jk.2025.11.92.3

한문 기원 한자어의 음운현상*
-『三峯集』 출현 한자어를 대상으로 -

양 순 임**

1. 머리말
2. 기층한자어의 음운현상
   1) 음운현상별 분석
   2) 음운현상 간 관계
3. 문체 변화와 음운현상
   1) 문체 변화
   2) 문체별 한자어 적층구조와 음운현상
4. 맺음말

<국문초록>

한문의 통사구조는 국문에 수용될 수 없었지만 한문의 구절은 대거 한자어로 국문에 편입되었고, 이렇게 한문에서 기원한 한자어를 '기층한자어'라 불렀다. '史的, 理科, 沒理解'처럼 불규칙한 음운현상으로 주목받는 예 중 다수는 기층한자어가 아니다. 이런 점에서 현대국어 한자어는 기층한자어인지 아닌지 층위를 나누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三峯集』을 대상으로 기층한자어임을 실증하고 이를 자료로 음운현상을 분석하고, 음운현상과 문체 변화로 인한 한자어 적층구조 간 관계를 논의했다.

'ㄴ+ㄹ→[ㄴㄴ], ㄴ첨가, 불규칙 경음화'는 한자어 형태음운론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 한자어에만 있거나 고유어와는 조건이 다른 음운현상 중 출현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6053361).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baromi20@naver.com)

빈도가 가장 낮았다. ㄴ+ㄹ→[ㄴㄴ], ㄴ첨가는 기층한자어에서는 규칙으로 보기 어려웠다. 2자어가 96.49%에 달하는 기층한자어에서 ㄴ+ㄹ→[ㄴㄴ] 예는 거의 없었고, ㄴ첨가는 '軍用, 强弱'처럼 '공명자음+j' 연쇄에서 수의성이 강했기 때문이다. 어말 '格, 科, 權, 法, 的' 등의 의미는 기층한자어에는 없던 파격이고, 이것이 불규칙 경음화의 주요 동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세 현상은 불규칙성과 수의성이 높은데, 그 주된 원인은 모두 복합어라는 조건을 요하고, 상층한자어에서 본격적으로 작동되어 기층한자어로 소급·확산되는 중이고, 한자어 내부경계에 대한 세대별, 화자별 판단 차가 크다는 데 있다고 판단된다.

* 주요어: 기층한자어, 2자어, 음운현상, 문체, 한문

1. 머리말

'찬값[찬깝], 찬과[찬과]'에서 경음화 실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합성명사인지 아닌지에 대한 형태론적 정보이다. 그러나 한자어에서 이러한 설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예컨대 '傳貰價'와 '전셋값'은 둘 다 경음화하지만, 사전에[1] 따르면 '傳貰價'의 '-價'는 접사이므로 합성명사가 아니다. 또 最高價, 高價, 最低價, 低價에서 '價'의 발음형은 모두 [까]인데, 2음절어의 '價'는 형태소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단일어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 정보는 고유어를 기반으로 구축된 음운론과 형태론에 균열을 일으킨다. 음운론에서 '최곳값'은 사잇소리현상이고 '最高價, 高價, 低價'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형태론에서는 '美人'과 같은 2자어를 합성어로 보기도 하고,[2] 고유명사와 2자어 구성 한자의 형태소 지위를 적극 인정하는 견해도 있어서,[3] '最高價'

1) 이하 '사전'은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표준국어대사전을 가리킨다.
2) 최현배, 『우리말본』, 정음사, 1929/1986, 688~689쪽. ; 이익섭, 『국어학개설』, 학연사, 2011, 115쪽.
3) 이상복, 「국어의 형태소 분석에 대한 일고찰(1)」, 『배달말』 50, 배달말학회, 2012, 1~35쪽. ; 주지연, 韓國語 漢字 形態素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1), 『어문연구』 45(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7, 67~98쪽.

와 달리 '高價'는 단일어로 제시하는 것이 온당한지에 대한 논의는 열려 있다.

고유어 문법에는 없었던 개념인 '2자어, 3자어', '기능소'의 도입은[4] 한자어 연구의 선구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2자어 구성 한자를 대부분 비기능소로 보았지만, '古家, 歸家, 喪家' 등과 계열관계를 형성하는 '妻家'의 '家'를 어휘부에 저장되는 심리적 기억 단위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X的'처럼 2음절어지만 2자어가 아닌 예도 있고, 無限定, 不合格, 準決勝처럼 관형명사로 기능이 한정되지 않으면서도 내부구조가 고유어와 다른 예도 있어서, 기능소와 비기능소, 2자어와 3자어의 경계가 그리 분명한 것은 아니다. 비기능소와 元辭로 된 2자어는 대부분 한문 기원 한자어일 테지만 '史的, 理科, 私法'처럼 2음절어라도 한문에서 안 쓰이던 말도 많고, '陰陽科, 相見禮, 無消息, 殺人者'처럼 3음절어지만 한문 기원인 예도 있어서 음절 수로 한문 기원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이는 한문을 중국어와 동일시하는 수도 많았고,[5] 借字 표기는 다루면서 한문은 국어학의 연구 자료로 삼지 않는 경향 때문일 것이다.

'無限定, 似而非'처럼 고유어 조어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3자어도[6] 많은데, 이는 한문에서 인접하여 쓰이던 구절이 그대로 단어화하여 현대 한자어 체계의 한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한문 기원임이 실증된 한자어를 '기층한자어'라 하고, 현대 한자어 문법의 체계적 복잡성을 推本하기 위해서는 한문을 根基로 하는 기층한자어와 그렇지 않은 상층한자어로[7] 층위를

---

4) 김창섭, 「'-적(的)'의 두음 경음화와 2자어 3자어론」, 『국어학』 68, 국어학회, 2013, 167~188쪽. ; 노명희, 「한자어 형성과 기능 단위」, 『한국어 의미학』 43, 한국어의미학회, 2014, 159~185쪽.

5) 한문은 동아시아의 외교 公用語였고, 共通 문어로서 구어(민족어)와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공존했다. 무엇보다 한문이 주류 문어로 기능하던 시대에는 외국어로서의 정체성을 갖지 않았다(유정민, 「한자문화권과 양층 언어(diglossia)의 문제」, 『어문연구』 47(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9, 38~39쪽).

6) 이하 본고에서 '2자어, 3자어'는 '2음절어, 3음절어'와 같은 뜻으로 쓴다.

7) '상층한자어'는 대체로 한문기를 벗어나는 국한문혼용기, 개화기 무렵 한문에는 없던 의미 용법으로 생성·사용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무렵 생성된 어휘들을 모두 상층한자어라 보기는 어렵다. 國家, 文明, 憲法, 社會처럼 서구 개념에 대한 번역어로 사용된 한자어를 일본식 한자어(또는 번역어)로 부르기도 했지만, 「2」에 따르면, 이들은 한문에서와 의미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번역어로 선택된 것일 뿐, 한문에서 기원한 기층한자어이고 당시 한·중·일 지식층에게는 익숙한 단어였다. 공통문어인 한문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면 일본을 넘

나누어 살펴볼 필요성을 주장한 「1」, 「2」와[8]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 연속선상에 있다.

필자는 최근의 한문기인 조선의 儒者들에게 널리 읽혔던 문헌이나, 조선에서 생산되고 소비된 한문문헌을 대상으로 기층한자어임을 실증한 뒤, 그것의 음운적 특성을 밝히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연구방법의 구체적 실효성으로는 「1」, 「2」에서 경음화3을[9] 유발하는 '-的, -性,[10] 경음화2와 ㄴ첨가의 예외를 보이는 '沒-'은[11] 한문에는 없었던 의미 용법임을 확인한 것을 들 수 있다. 즉, '-性, -的, 沒-'은 한문에는 없었던 의미 용법이고 기층한자어로 보기 어렵다.

한문어(2자어)에는 한국어 조어법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언급도 있었는데,[12] 이는 자칫 현대국어 한자어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2자어의 형태론, 음운론을 국문법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한자어는 그것이 2자어든, 한문어든 국문법의 대상임은 명약관화하다. 한자어 연구에서 한

어 한국과 중국에서 이렇게 대량 수용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株價'의 株가 주식의 뜻을 가진 것은 한문기가 끝난 뒤일 테지만, 'X價' 형태는 한문에도 자주 등장했다. 이처럼 모든 한자어를 일도양단하기는 어렵고, 이는 한자어 적층구조의 기층에 해당하는 한문 기원 한자어에 대한 국어학적 기초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8) 다음 각각을 「1」, 「2」로 표기하는 것은 본고의 연구결과와 비교·종합이 필요해서 인용이 불가피한데, 기술의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다. 양순임, 한문 기원 한자어의 음운현상에 관한 계량적 연구, 『국어학』 107, 국어학회, 2023, 3~33쪽. ; 양순임, 기층한자어 음운현상 연구, 『우리말연구』 76, 우리말학회, 2024, 5~31쪽.

9) '경음화'는 불파음 뒤, '경음화2'는 'ㄹ+ㄷ,ㅈ,ㅅ'인 한자어에서의 규칙적 경음화를 뜻한다. '경음화3'은 사잇소리현상이라 불리는 불규칙 경음화를 말한다.

10) 「1」, 「2」에 따르면 3자어 말 '的'이 경음화하지 않는 것은 조사 '의'에 대응하는 의미로 생략 가능한 경우가 많고, 앞말과 분리성이 커서 한 단어로서 결속이 약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았다. '性'은 한문에서 고빈도어이지만 명사로 사용되었지, '-ness'에 해당하는 접사적 의미 용법은 없었다. 2자어 말 '性'이 경음화하지 않는 것은 대부분 한문에서 사용되었던 실사적 의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11) 「2」에 따르면, 기층한자어 '몰두, 몰사, 몰수, 몰살' 등에서 沒은 '죽다, 다하다'의 뜻이지만, '몰상식, 몰지각', '몰이해, 몰인정'의 沒은 '그것이 전혀 없음'으로 한문에서는 없던 의미이고 상층한자어이다. '沒X'에서 경음화2와 ㄴ첨가의 수의성은 부정의 뜻으로 쓰인 沒의 역사가 일천한 데다 실사적 의미도 아니라는 데 그 원인이 있다.

12) 公用, 食用에서 '公'과 '用', '食'과 '用'의 결합에는 한문문법만 관여하지 한국어 조어법은 관여하지 않는다(배주채, 「한자 '病'으로 끝난 단어들의 조어법과 경음화」, 『한국문화』 98,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22, 66쪽).

문을 자료로 삼는 연구방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기층한자어임을 실증하고, 상층한자어 대비 형태음운론적 차이를 밝히는 데 있다.

현행 사전으로는 기층한자어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다. '壟/隴斷' 등 극소수의 단어는 출전을 밝히고 있지만 '不在, 國家, 無盡藏'과 같은 고빈도어는 대부분 어원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主人家'에서 한자어 主人, 人家 중 어느 것을 추출할 것인지는 원 문장과 맥락에 따라 다르므로 기층한자어 조사는 자동화하기도 어려운 상태다. 따라서 기층한자어임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한문, 번역문, 사전' 삼자를 대조하는 지난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기층한자어 판정 기준은 「1」의 방법을 따랐다. 중복을 피하고자 최소한만 밝히면, 2자 이상 한자어만 조사하고, 한문에서 연이어 나타나면서 한 의미단위 내의 것만 자료로 삼았고, 한문에서의 의미와 사전 뜻풀이 간에 의미적 유연성을 확인하고 분석대상으로 채택했다.[13] 중복 자료는 제거하고, 사전과 대조하여 한문에서 기원한 현대국어 표준어임을 확증한 후 자료화하였다.[14]

『三峯集』을 자료로 선택한 이유는 먼저, 「1」, 「2」에서 자료로 삼았던 『四書集註』의 필자는 조선어 모어 화자가 아닌데, 기층한자어 연구를 위해서는 조선어 모어 화자가 쓴 한문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기층한자어임을 실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료의 전략적 선택은 불가피했는데, 방대한 조선 한문 중 최대한 시대적 편중을 막고자 했다. 필자는 향후 『栗谷全書』, 『熱河日記』를 대상으로 연구를 지속할 계획인데, 이들 문헌 작자의 생몰 연대는 대략 2세기를 격한다. 셋째, 「1」, 「2」에 따르면 기층한자어에서 3자어 출현율은 2.28% 미만이었는데, 『三峯集』에는 經筵官, 勤政殿, 寶文閣, 司憲府, 典樂署, 中樞院, 春秋館, 通禮門과 같은 3자어가

13) 1자어는 두음법칙 외의 음운현상과 무관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經之營之'는 '經營'의 기원임이 분명하나 두 글자가 분리되어 쓰였으면 자료로 삼지 않았다. '君子成人之美'의 '成人'은 자료로 채택할 수 없는데, '君子는 人之美를 成하다'의 의미구조여서 '成人'이 한 의미단위로 결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난(〈艱難), 잠깐(〈暫間), 허락(〈許諾), 시월(〈十月)'과 같은 한글맞춤법 52항의 설명 대상도 자료에서 제외했는데, 이는 음운적 조건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개별 단어에 한정된 한자음 변화이기 때문이다.

14) 사전의 한자어가 한문에 동일 형태, 유사 의미로 출현함을 확인하는 것은 이것이 현대국어 한자어이면서 기층한자어임을 실증하는 수단이지, 『三峯集』의 집필, 간행, 유통 시기에 한자어화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수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들은 고유명사이지만 지금도 생산성이 있는 3자어 조어법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15]

본고의 연구목적은 조선 한문을 대상으로 기층한자어임을 실증한 후, 이들의 음운현상을 밝히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三峯集』에 출현하는 한자어를 조사하고, 자료에 나타나는 각 음운현상의 양상과 음운현상 간 관계를 분석하고, 둘째, 분석결과를 「1」, 「2」와 비교·종합하여 기층한자어 음운현상의 원리를 詳明하고, 셋째, 문체 변화로 인한 한자어의 적층구조와 음운현상 간의 상관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2. 기층한자어의 음운현상

이 장에서는 『三峯集』에서 확인된 한자어를 대상으로 고유어와 상층한자어 대비 기층한자어 음운현상의 전모, 음운현상 간 상관성, 핵심 동인에 대한 종합적 설명과 아울러 예외적, 주변적 음운현상에 대해서는 어휘별 정밀 분석을 할 것이다.

본고의 조사 대상 한문의 전체 자수는 「1」보다 많고, 「2」보다 적다. 그러나 '한자어에 사용된 자수/전체 자수'는 「1」, 「2」보다 오히려 높다. 이는 고유명사 때문인데, 「1」, 「2」에서 발견된 고유명사는 대부분 1자어이거나 현대국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말들이어서 제외했었다. 그러나 본고에서 고유명사를 포함했는데, 그 까닭은 '경복궁'처럼 현대에도 익숙한 단어이면서 기층한자어에는 드문 3자어가 다수 나왔기 때문이다.[16] 전체 자수 대비 한

15) 『三峯集』은 14권 7책으로 된 방대한 분량인데, 이 중 권4의 記 일부, 設, 題跋, 行狀, 墓表, 祭文, 策題, 銘과, 권5의 「佛氏雜辨」, 권6의 「心氣理篇」, 「心問, 天答」, 권9, 10의 「經濟文鑑」, 권 13, 14의 「朝鮮經國典」을 대상으로 하였다. 가능한 다양한 한문 문체를 포함하되, 「1」,「2」와의 비교분석을 위해 운문은 제외하였는데 산문도 전부 다루지는 못한 것은 워낙 방대한 내용이어서 필자의 품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임을 밝힌다. 자료 기반 논의는 자칫 관념적일 수 있는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는 장점도 있으나, 한정된 자료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일반화의 한계 또한 존재한다. 원문은 한국고전종합DB의 것을 자료로 삼았다. 『三峯集』의 서지정보에 대해서는 오용섭(「三峯集의 간행과 편성」, 『서지학연구』 48, 한국서지학회, 2011, 229~253쪽) 참조.

16) 『三峯集』은 經世를 논하는 내용이 많아 '관직, 건물, 제도' 등과 관련된 3자어 고유명사 비중이 다른 문헌보다 높게 나타났을 것이다.

자어 자수는 얼마나 많은 현대국어 한자어가 한문과 직접 관련되는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17]

1) 음운현상별 분석

중복 자료 삭제 후 2음절 이상 한자어 총 4,249개를 자료로 확정하였다. 이 중 표준발음을 기준으로 음운현상이 적용되는 단어는 954개였고 나머지 3,295개(77.55%)는 음운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단어였다.[18]

〈표 1〉 음운현상별 발생빈도와 발생률

부류	발생빈도	발생률	음운현상		발생빈도	발생률
1류	553	54.74	연음		281	27.77
			경음화		213	21.05
			비음화		30	2.96
			격음화		24	2.37
			순행적 유음화		6	0.59
2류	432	42.69	두음법칙		173	17.09
			ㄹ비음화	ㅁ, ㅇ+ㄹ	89	8.88
				ㄴ+ㄹ	1	0.01
			경음화2[19]	경음화2	82	8.10
				(不 ㄹ탈락)	18	1.78
			역행적 유음화		69	6.82
3류	27	2.57	경음화3		22	2.17
			ㄴ첨가		4	0.40
합	1,012	100%			1,012	100%

17)

문헌 \ 자수	전체	고유명사	한자어	한자어/전체
「1」『四書』	56,731	4,900	12,789	22.54
「2」『集註』	139,247	14,214	36,773	26.41
『三峯集』(일부)	65,407		22,151	33.87
합	261,385		71,713	27.44%

18) 음운현상이 적용되지 않는 비율은 「1」에서도 73.93, 「2」도 75.53%로 대단히 높았다. 음운현상 발생의 전형적 환경은 '명사+조사'이거나 '어간+어미'인데, 본고는 한자어 내부를 살피고 있고, 게다가 한자어는 음절구조도 고유어보다 더 단순하기 때문이다.

음운현상이 적용되는 단어는 954개인데 〈표 1〉에서 음운현상 발생 총 횟수가 1,012회인 것은 '倫理[율리]'처럼 한 단어에 복수의 음운현상이 적용되면 두음법칙과 역행적 유음화 양쪽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표 1〉의 부류는 음운현상을 고유어 기준으로 삼분한 것이다. 1류는 적용조건과 결과가 고유어와 완전히 같고, 2류는 주로 한자어에만 나타나고, 3류는 고유어와는 적용조건이 다른 음운현상이다.

음운현상 발생률은 1류가 54.74%, 2류는 42.69%, 3류는 2.57%였다. 1류 발생률은 '연음>경음화>비음화>격음화>순행적 유음화'의 순으로 「1」, 「2」와 같았다. 2류 발생률은 '두음법칙>ㄹ비음화>경음화2>역행적 유음화' 순이었다. 「1」, 「2」와 달리 ㄹ비음화의 빈도가 경음화2보다 약간 높았으나 차이는 근소하다. 3류 발생률이 극히 낮다는 점도 같았다. 경음화 3종은 각각 동인은 다르나 결과는 같은데 이를 모두 합치면 31.32%로 음운현상 중 최다 발생률을 보인다. 이 또한 「1」, 「2」와 같아서 세 연구 다 경음화 3종의 발생률은 30%가 넘고, 이는 연음보다 높은 수치이다.

2) 음운현상 간 관계

한자어에만 적용되는 2류, 고유어와는 적용양상이 다른 3류에 대해서는 정밀분석이 필요하다. 거시적으로는 음운현상 간 상관관계를, 미시적으로는 어휘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가. 經理, 同類, 零落, 網羅, 並立, 生老, 靜慮, 總論, 通禮, 平亂, 刑戮, 中郎將, 通禮-門, 榮祿-大夫 / 宣明-曆, 承奉-郎, 大明-律(59)[20]
　　나. 戡亂, 汎濫, 滲漏, 心勞, 嚴令, 侵陵.(6)
(2) 가. 獨立, 落落, 戮力, 福祿, 福利, 俗流, 驛路, 屋漏, 積累, 策勵(20)
　　나. 法令, 變理, 疊嶺, 合理.(4)

19) 'ㄹ탈락'은 경음화2의 예외이고 공시적 음운규칙은 아니지만, '不X' 한자어에 한정된 소규칙이어서 표에 포함했다.

20) 자료 예시 뒤의 괄호 안 숫자는 해당 음운현상을 보이는 자료의 개수이다.

(1), (2)는 ㄹ비음화가 적용된다. (1가)는 'ㅇ+ㄹ'의 일부, (나)는 'ㅁ+ㄹ'의 예 전부이다. 'ㅇ+ㄹ'가 'ㅁ+ㄹ'보다 10배 정도 많았다. (2)는 '장애음+ㄹ'에서 (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ㄱ+ㄹ' 환경이었다. 「1」, 「2」와 종합해 보면 연구개음 'ㄱ, ㅇ'이 양순음 'ㅂ, ㅁ'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⑶ 觀覽, 年例, 倫理, 紊亂, 山路, 言路, 專力, 限量, 賢良, 縣令, 婚禮(69)

⑶은 'ㄴ+ㄹ'에서 유음화하는 한자어의 일부인데 모두 2자어였다. 「1」, 「2」에서 'ㄴ+ㄹ→[ㄴㄴ]' 예는 전무했고, 본고에서 발견된 '相見禮'가 유일하다. 이는 기층한자어에서 3자어 비중이 「1」은 2.28, 「2」는 1.26, 본고는 1.93%에 불과한 것과 유관하다. 'ㄴ+ㄹ→[ㄴㄴ]'는 대부분 '2+1'로 분석되는 3자어에 적용되고, 앞말의 자립성이라는 형태론적 요인이 역행적유음화와 ㄹ비음화의 선택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양자의 선택은 여전히 유동적임은 주지하는 바이다.[21] 특히 '음운론, 광안리, 건릉, 원룸, 온라인'처럼 유동성이 두드러지는 예는 앞말의 자립성이 불안정한 전문어, 고유명사, 외래어인 경우이다.[22] 'ㄴ+ㄹ'에서 비음화보다 유음화가 통시적으로 앞섰지만, 17세기 자료에서 2자어 'ㄴ+ㄹ'도 [ㄹㄹ]보다 [ㄴㄴ]가 더 우세한 것처럼[23] 두 규칙 간 통시적 부침도 있었다.

'ㄴ+ㄹ→[ㄴㄴ]'의 확산은 상층한자어에서 3자어 증가와 더불어, 동일 제약을 준수하는 더 강력하고 일반적인 규칙에 합류된 것이기도 하다. ㄹ비음화는 'ㄴ,ㄹ 외 자음+ㄹ'에서 적용되므로 역행적 유음화보다 적용 환경이 훨씬 더 넓고 강력한 규칙이다.

---

21) 역행적유음화와 ㄹ비음화 간에는 유동성이 심하다(한명숙, 「신어에서 나타나는 /ㄴㄹ/ 연쇄의 발음 양상 연구」, 『한말연구』 50, 한말연구학회, 2018, 231~258쪽).

22) '천 리, 산림'의 '천, 산'은 자립형태소인데 유음화하는 것은 한자어에서 자수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冕旒, 麵類'는 표준발음이 [멸류]이지만 앞말이 자립형태소인 麵類는 [*면뉴]로 발음하는 경향이 강하다. 'ㄴ類'의 표준발음은 菌類처럼 1+1자일 때는 [ㄹㄹ], 眞菌類처럼 2+1자일 때는 [ㄴㄴ]이지만, 分類의 달리 菌類, 卵類처럼 '명사의 類(무리)'의 뜻일 때 [ㄴㄴ]가 통용된다. 'ㄴ陵'은 健陵처럼 1+1자이든, 健元陵처럼 2+1자이든 모두 [ㄹㄹ]가 표준발음이지만, '陵'의 어두음 [능]으로 통일되어 [ㄴㄴ]로 발음되는 경향을 보인다.

23) 신성철, 「ㄹ비음화의 통시적 고찰」, 『한국언어문학』 102, 한국언어문학회, 2017, 75쪽.

(4) 가. 閭巷, 歷代, 連年, 烈女, 零落, 靈長, 龍宮, 謬誤, 六卿, 陸輸, 倫理, 利權, 離叛, 立對, 禮義, 入官(111)
나. 論辨, 羅末, 落落, 蘭臺, 狼狽, 虜掠, 老僧, 祿俸, 弄法, 凜然(52)
다. 女樂, 女眞, 年代, 年表, 年例, 念慮, 恬退, 佞邪, 寧日, 泥塗.(10)

(4)는 두음법칙 사례 173개 중 일부이다. 역행적 유음화, ㄹ비음화와 같이 ㄹ두음법칙의 발생 동인도 'ㄹ 외 자음+ㄹ'의 결합제약에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ㄹ두음법칙 적용 예가 163개로 압도적 다수이고 ㄴ두음법칙은 (다)의 10개가 전부이다. 「1」에서도 'ㄹ두음법칙:ㄴ두음법칙'에 해당하는 단어가 139:4개, 「2」에서도 179:11개로 비대칭적이었다. 「1」, 「2」와 본고 모두 전체 두음법칙 중 94% 이상이 어두 ㄹ의 제약으로 인한 것이었고 ㄴ두음법칙 예는 상대적으로 극히 적었다.

(5) 가. 說得, 一代, 節度, 截斷, 卒徒 / 屈折, 滅絶, 失職, 節制, 質正 / 乞食, 物產, 殺傷, 鐵石, 出師(76)
나. 都節制使, 四通八達, 一動一靜, 日就月將, 密直副使, 密直提學(6)

(5)는 경음화2가 적용된 82개 중 일부이다. (나)는 2자어가 아니지만 경음화2의 적용 영역은 '절제, 팔달, 일정, 월장, 밀직'이다.[24] 따라서 경음화2는 '1+1'자 경계에서 적용되는 현상이고, 기층한자어에서 작동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자음 종성 'ㄹ'의 음가가 [l]이 아니라 [l˚]이기 때문이다.

(6) 가. 不道, 不動, 不同, 不得不, 不得已.(5)
나. 無所不至, 不在, 不戰, 不定, 不整, 不正, 不齊, 不足, 不知, 不盡, 不進, 衆寡不敵, 參差不齊.(13)
다. 不死, 不辭, 不祥, 不詳, 不善, 不屑, 不誠, 不純, 不順, 不勝, 不時, 不息, 不信, 不愼, 不失.(16)

경음화2의 예외는 모두 '不X'인데, 후행 자음이 'ㄷ, ㅈ'일 때는 '不'의 말

24) '一動一靜'은 내부에 붙임표가 없고, '도-절제사'를 뺀 나머지는 모두 2+2자 경계에 붙임표가 있다. '密直'을 제외한 '2+2'의 2자어 각각은 사전 등재어이다.

음이 탈락한다. (6다)처럼 '不ㅅ'일 때는 경음화2를 준수하는데, 「1」, 「2」에서는 不實 하나가 예외로 발견되었다. 2자 이상의 '不X' 사전 등재어 1,132개 중 '不ㅅ'의 발음형과 표기형이 [불]인 것은 132개이고 후행 'ㅅ'은 경음화2가 적용된다. [부]인 것은 '不思議界, 不思議智, 不山處, 不實, 不實企業, 不實施工, 不實化' 7개뿐이고, 이 중 상용어는 '不實'이 유일하다. 따라서 '不實'을 제외하면, 不의 ㄹ탈락은 'ㄷ, ㅈ' 앞에서만 나타나고, '不ㅅ'은 경음화2를 따른다고 일반화할 수 있다.

2류 음운현상 중 ㄴ두음법칙과 不의 ㄹ탈락을 제외한 93.52%는 ㄹ음과 관련된다. ㄹ 외 자음 뒤의 탄설음은 조음 난도가 높아서 이를 피하고자 하는 유표성 제약 준수라는 「1」, 「2」의 주장은 본고의 자료로도 유효하다. 고유어에는 'ㄹ 외 자음+ㄹ'의 결합이 없다는 점에서 보면 이 역시 고유어의 질서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7) 가. 軍用, 分裂 / 强弱, 經營 / 物欲(慾), 發育 / 陰陽, 參與
　　나. 雜用, 執役 / 百藥, 六藝

표준발음상 ㄴ첨가 예는 '입신양명'과 같은 4자어뿐이어서 발생률은 1% 미만이다. 그러나 (7나)처럼 2자어에서 첫음절 말음이 장애음일 때는 ㄴ이 첨가된 [*잠뇽, 뱅냑]이 통용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공명자음+j'인 (가)는 ㄴ이 첨가된 [*군뇽, 강냑, 물룍, 음냥]이 통용음으로[25] 세력을 확산하고 있다. 한자어에서 ㄴ첨가의 확산을 주도하는 것은 '공명자음+j'라는 음성적 요인이다. 이는 고유어와는 다른 양상인데, 음운론적으로 '자음+i'가 적용조건에서 배제될 뿐 아니라,[26] 형태론적으로 복합어도, 기능소 존재 여부도 조건이 못 되는 것으로 보인다.[27]

---

25) '통용음'의 사전 정의는 '어법에는 어긋나지만 널리 쓰여 일반의 버릇으로 굳어진 소리'이다. 본고에서는 '널리 쓰여'를 '지역방언이나 사회방언에 상관없이 널리 쓰여'로 구체화한 개념으로 썼다.

26) 김유범 외, 「ㄴ삽입 현상의 연구사적 검토」, 『語文論集』 46, 민족어문학회, 2002, 51쪽.

27) 예컨대 '炎, 藥'은 명사이고, 이들로 끝난 3자어는 '자음+j'라는 음운 조건이 충족되면 ㄴ이 첨가된다. 그러나 '毒藥, 舌炎'과 달리 '光藥, 貼藥, 腸炎, 膣炎'은 ㄴ첨가된 형태가 표준발음이다. 또 金曜日은 淸料理, 劇藝術처럼 '1+2' 구조인데, 'X요일'은 ㄴ이 첨가되지 않는다.

고유어에서도 'X일, X익다, X입다' 복합어는 거의 예외 없이 ㄴ첨가되는 반면, 'X있다'는 모두 ㄴ이 첨가되지 않는 등 어휘별로 적용 양상이 다르기도 하고, '색연필, 설익다', '자음+요(보조사)' 등 수의적 양상을 보이는 예도 많다. '-欲, -用, -油' 등 2+1자로 분석되는 3자어에는 ㄴ이 첨가되는 규칙적 양상을 보이지만, 1+2자 구조로 두음법칙과 관련된 '연이율[-니-/여니], 순이익[-니-/수니-], 불이익[-리-/*부리-], 청요리[-뇨-]' 등과 ㄴ첨가가 적용되지 않는 'X요일' 등 3자어도 수의성과 불규칙성을 보이는 예가 많다.[28] '전용, 경유'는 [저뇽, 경유]가 표준발음이지만 [*전뇽, 경뉴]도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고, '검열, 금융'은 ㄴ첨가형과 연음형이 복수 표준발음이다. 이처럼 ㄴ첨가는 수의성과 규칙성 간 진폭을 보이는데 고유어가 가장 규칙성이 높고, 상층한자어, 기층한자어 순이다. 기층한자어로 한정하면 ㄴ첨가는 규칙으로 보기 어렵다. 이는 2자어가 주류를 이루는 기층한자어에서 화자별 단어 내부분석의 편차가 가장 크기 때문일 것이다.

(8) 가. 禮法, 弄法, 文法, 犯法, 兵法, 不法, 成法, 新法, 王法, 用法, 八法, 虛法, 刑法.(13)
나. 弄權, 利權, 兵權, 專權, 政權.(5)
다. 名字, 文字, 神格, 酒價.(4)

(8)은 경음화3을 보인 사례 22개인데, 'X法'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X權'이었다. (8다)는 각각 '字, 格, 價'로 끝난 명사들이다. 이들 한자로 끝나는 한자어 생성은 지금도 유효하다. 경음화3은 고유어에서도 불규칙하므로 어휘별 발음형에 대한 양적 분석과 이를 토대로 신어의 발음형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29] 어말이라는 동일 분포와 유사 의미를 지닌 한자는 발음형도 통일

'극예술'도 [긍녜술/*그계술]의 변이가 있는 듯하다.

28) ㄴ첨가는 지역방언 및 사회방언별 편차도 크다(정인호, 「ㄴ첨가 관련 현상의 방언 비교」, 『방언학』 10, 한국방언학회, 2009, 195~219쪽. ; 조성문, 「ㄴ첨가의 세대별 실현 양상에 대한 분석」, 『한국언어문화』 71, 한국언어문화학회, 2020. 215~240쪽).

29) Maximum Entropy model도 비범주적, 수의적 음운 변이를 설명하는 데 취약한 최적성 이론을 보완하기 위해 유사한 연구방법을 썼다. 제약의 강도를 수치화한 가중치를 제약에 추가함으로써, 표면형이 위배하는 제약의 위배 횟수와 가중치에 따라 각 이형태의 발생확률을 설명하였다(Coetzee, Andries W., and Joe Pater, The place of variation in phonological theory, *The handbook of phonological theory*, 2011, pp. 401~434).

하려는 경향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표 2〉 어말 한자별 평음 발생률

어말 한자 / 한자어 수(%)	權	價	法	科	字	格
전체	458	178	1,666	262	263	138
평음 (평음 발생률)	15 (3.28)	9 (5.06)	107 (6.42)	75 (28.63)	101 (38.40)	56 (40.58)

〈표 2〉는 고유명사를 제외하고 '權, 價, 法, 科,[30] 字, 格'으로 끝난 2자 이상 한자어를 사전에서 전수 조사하여 평음 발생률을 보인 것이다. 이 중 '權, 價, 法'의 평음 발생률은 7% 미만에 불과하고, 더구나 평음이 표준발음인 단어들은 대부분 지금은 잘 쓰지 않는 말이다. 예컨대 어말 '權'의 표준발음이 [권]인 단어는 '經權, 達權, 當權, 秉權, 善權, 順權, 用權, 威權, 一時之權, 正權, 從權, 重權, 天權, 擅權, 化權' 15개뿐이다. 〈표 2〉로 보아 'X權, 價, 法'은 경음화3이 거의 완결 단계임을 알 수 있다.

「1」, 「2」와 본고에서 경음화3이 적용되는 한자어는 각각 1.39, 2.41, 2.57%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X價, 權, 法'처럼 한문에서도 빈출하는 형태이면서 ㅅ전치성 형태소도 있다.[31] 3자어 말의 '價'는 사전에 접미사로 되어 있고, 이는 합성명사에 적용되는 경음화3의 고유어 조건에 위배된다. 그러나 조어법 용어인 語基와 접사의 관점에서 보면 '價'를 접사로 단정하기 어렵다. '定價, 鑑定價, 高價, 最高價'에서 '價'는 의미의 중심이고,[32] 이 의미는 '價性比'와 같은 신어를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언중들에게 투명하고, 株價와 주

30) (8)에 'X科'가 없는 것은 본고에서 조사된 어휘 '登科, 武科, 文科, 犯科, 吏科, 陰陽科, 醫科'의 표준발음이 모두 [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文科2, 醫科2'도 [*-꽈]로, 문과급제[*문꽈급쩨], 음양과[*으먕꽈]로도 통용된다는 점에서 '科'를 같이 분석한다.

31) ㅅ전치성 형태소는 배주채(『한국어의 발음』, 삼경문화사, 2003, 226~228쪽) 참조.

32) '감정가, 생산가, 분양가' 등은 앞말의 자립성과 '2+1' 구조의 생산성으로 인해, 의존형식인 '價'가 접사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어근과 접사가 자립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님은 '當하다, 變하다, 求하다'에서 의존형식인 '當, 變, 求'가 語根으로 분류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2자어에서 '價'는 접사가 아니다.

식가격, 傳貰價와 전셋값은 유의어다. 'X값'과 마찬가지로 'X價'도 경음화3의 적용이 완료되었고, '價'는 'X값'에 대응되는 의미의 투명성 면에서 봐도 접사로 보기 어렵다.[33]

또한 사전에 등재된 1음절 한자 접사는 접두사 98, 접미사 235개로 모두 333개에 달하는데 이렇게 대량으로 문법화가 일어난 것도 심상한 일은 아니다. 氣, 軍, 說, 長, 證이 자립명사화하는 것을 역문법화로 보기도 했는데,[34] 이는 이들 한자가 접미사임을 전제한 것이다. 그러나 한문기를 염두에 두면 '명사>접미사>명사'의 과정을 밟은 것이 되고, 이는 일반적 변화 과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男學生, 約婚男의 '男'은 각각 접두사, 접미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동일한 의미와 형태를 지닌 형태소가 접두사이기도 하고 접미사이기도 한 것도 보편적이지는 않다. 사전에 따르면 强大國의 國은 접미사이고, 大國은 분석하지 않고, 國公立은 國-公立으로 분석한다. 그러나 강대국, 대국, 국공립에서 '國'은 동일 의미를 지닌 실사로 인식된다.[35] 무엇보다 2자어도 한국어이고 국문법의 대상이어야 하는데, '價'류를 접사로 등재한 것은 3자어만 대상으로 한 것이다.

〈표 2〉에서 28.63~40.58%로 적잖은 평음 발생률을 보이는 '科, 字, 格'의 경음화3에 대해서는 발음형을 좀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科, 格'은 경음화와, '字'는 경음화, 경음화2와 분리해서 봐야 하고, 자수도 고려해야 한다. 역행적 유음화와 ㄹ비음화에서처럼 한자어 음운현상과 자수(음절 수)는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1한자가 1형태소에 대응되기 때문이다.[36]

---

33) 자립명사인 句로 끝난 'X句' 형태의 사전 등재 한자어 122개 중 36개는 표준발음이 [구]지만, 대부분의 'X句'는 자수와 상관없이 語句, 初句, 對位句, 長短句처럼 [*꾸]가 통용되고 있다. 이들은 고유어 경음화3의 조건인 합성명사를 충족한다. 반면, '家, 者, 子, 生, 士, 手' 등은 한문에서 접사적 용법으로도 쓰였는데 일체 경음화3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3자어의 '價'가 접사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34) 최윤지, 「자립명사로 발달하는 한자어 파생접미사에 대하여」, 『형태론』 10(2), 형태론, 2008, 319~333쪽.

35) 이는 허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한자어 구성 한자에 해당한다. 예컨대 '외분비, 외출혈'처럼 3자어의 '外'는 접두사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만, '外科, 外國' 같은 2자어는 물론, '國外, 豫想外'처럼 어말의 '外'도 의미적 동질성을 지니고 있어서 '外'를 접두사로 보기 어렵다.

36) 김창섭(앞의 글, 174쪽)은 'X的'을 사잇소리현상으로 볼 수 없는 근거의 하나로 고유어에서는 앞말의 음절 수와 무관함을 들었다. 그러나 한자어에서 음절 수는 형태소 수와 연동

〈표 3〉 'X科' 한자어의 발음형

자수 / 발음형	2자	3자	4자	5자	6자	합(%)
[과]	40	27	6	2	-	75(32.33)
[과/꽈]	1	-	1	-	-	2(0.86)
[꽈]	37	73	38	6	1	155(66.81)
합(%)	78 (33.62)	100 (43.10)	45 (19.40)	8 (3.45)	1 (0.43)	232 (100%)

〈표 3〉은 '譯科'처럼 경음화하는 자료 30개를 제외한 232개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X科'는 경음화2와는 무관하다. [과]가 32.33, [꽈]가 66.81%로 차이가 컸다. 2자어에서 [과]는 51.28, [꽈]는 47.44%로 유사하지만, 3자어에서 [과]는 27%, [꽈]는 73%로 [꽈]가 지배적이다. 이는 일견 자수가 경음화3 적용을 결정하는 요인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文科1, 豫科, 醫豫科'는 [꽈]인 반면, '文科2, 律科, 武科, 勸武科, 陰陽科'는 [과]가 표준발음이므로 자수를 경음화3의 결정자로 보기 어렵다.

[과]와 [꽈]로 거의 양분되는 2자어를 살펴보면, [과]는 '武科'처럼 '科擧'의 뜻이다. 이에 반해 [꽈]는 '학과나 전문 분야, 생물 분류학상의 단위'로 기층한자어에는 없던 의미이기에 발생 당시에는 신어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科擧'의 뜻으로는 신어가 생성될 가능성도 희박하므로, 'X科' 형태의 신어가 생성된다면 자수와 상관없이 발음형도 [꽈]로 될 것이다. 이로 보아 자수는 경음화3의 원인이라기보다 결과이고, 기층한자어 대비 신어로 인식되었던 것을 중심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평음 발생률이 6.42%였던 'X法'에서 [법]을 유발한 중심의미도 근대적 의미의 '성문법, law'인데, 이는 국한혼용기의 언중들에게는 한문에서의 용법과 구별되는 새로운 개념이었을 것이다. 표준발음이 [법]인 단어는 절반 정도가 불교 어휘이고, 그 외 '방법'의 뜻인 '魔法, 方法', '대법원, 지방법원'을 뜻하는 '大法, 地法', '규범, 질서'의 뜻인 '無法, 非法, 司法, 違法' 등이 있다. 그

되고 음운현상은 대부분 형태론적 조건의 영향을 받는다.

러나 '方法, 非法, 準法, 家法, 佛法' 등은 [*법]으로 발음형이 통일되는 경향이 강하다.

〈표 4〉 'X字' 한자어의 발음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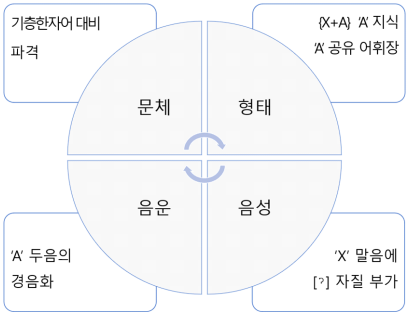
자수 / 발음형	2자	3자	4자	5자	합(%)
[자]	53	37	9	3	102(54.84)
[짜]	40	33	11	-	84(45.16)
합(%)	93(50.00)	70(37.63)	20(10.75)	3(1.61)	186(100)

〈표 4〉에서 [자]는 54.84, [짜]는 45.16%이다. '字'의 의미 '글자, 글자 세는 단위, 日字'는 한문에서부터 있던 것이다. 'X字' 등재어는 263개인데 이 중 77개가 '낙자, 활자'처럼 규칙적 경음화 환경이다. 규칙적 경음화는 경음화3을 추동하는 힘으로 작용하는데, 'X字'는 경음화2도 적용되므로 'X科'보다 규칙적 경음화 환경이 더 넓다. 같은 위치에 분포하는 한자는 같은 음을 유지하려 하고, 이를 「1」, 「2」에서는 최적성 이론의 충실성 제약을 준수하는 현상으로 해석하였다. 이로 인해 '大字, 文字1, 假借字, 甲寅字'에서 어말 '字'의 발음형은 표준발음 [자]가 아니라 [*짜]가 통용·확산되고 있다.

〈표 5〉 'X格' 한자어의 발음형

자수 / 발음형	2자	3자	4자	5자	합(%)
[격]	42	6	7	-	55(44.35)
[껵]	42	17	9	1	69(55.65)
합(%)	84(67.74)	23(18.55)	16(12.90)	1(0.81)	124(100)

〈표 5〉에서 어말 '格'은 [격]이 44.35, [껵]이 55.65%로 어느 한쪽이 지배적이라 하기 어렵다. 2자어에서 [격]과 [껵]은 동수였고, 3자어에서는 [껵]이 [격]보다 배 이상이다. '主格, 補格'처럼 언어학적 의미일 때는 자수와 상관없



〈그림 1〉 경음화3의 작동 기제

이 모두 [격]이었고, 이들은 상층한자어에 와서 생성된 신어이고, '-X格'의 경음화3을 유발한 진원지였던 것으로 보인다.[37]

〈그림 1〉은 「2」에서 어휘별로 진행 중인 경음화3 작동기제의 복합성을 도식화한 것이다. 문체면에서 '기층한자어 대비 파격'이라[38] 함은 어말 한자 형태소가 한문에서는 없던 새로운 의미와 용법을 획득한 상층한자어이기에, 국한문혼용기의 신어였음을 뜻한다. '학과나 전문 분야, 생물 분류학상의 단위'로서 '科', 언어학적 개념으로서 '格'은 기층한자어에는 없던 파격적 용법이다. '權, 法'도 법률적 의미가 경음화3의 진원지였다. 認證, 例證에서와 달리 [증]으로 발음하는 '면허증, 사원증'에서는 licence의 뜻이고, 이는 동음이의적 의미이든 다의적 확장이든 기층한자어에서는 없던 새로운 용법이다. '冷房病, 狂犬病, 性病, 肺病'은 [뼝], '重病, 癩病, 疾病, 發病'은 [병]으로 나는데, [뼝]의 진원지는 한문에는 없었던 '근현대 의학을 바탕으로 명명된 병명'이다. [뼝]은 점차 '熱病, 火病, 風病'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혼종어라도 여전히 [병]인 '골병, 잔병, 강병, 꾀병' 등이 '병명'의 뜻이 아님도 본고의 논의를 지지한다.

〈그림 1〉의 한자어 내부구조 {X+A}에서 A는 의미적 핵으로 이를 공유하는 어휘장을 형성한다. 고유어와 달리 한자어에는 ㅅ후치형태소가 없으므로 뒷말이 결정자이다. A는 의존형식이라도 ㅅ전치명사인 고유어와 대응하거나 기층한자어 대비 신어라는 점에서, 적어도 생성 초기에는 어근으로서 의미

37) 표준발음이 [격]인 '價格, 骨格, 規格, 資格, 體格'에서는 물론이고, [격]인 '本格, 性格, 神格, 失格, 人格, 品格'에서도 '格'의 의미범위는 불명확해 보인다. '本格'의 뜻은 '본에 맞는 올바른 격식'이지만, '본격적'일 때는 '적극적'의 뜻으로 의미변화가 감지되고, '破格[*-격]'처럼 비표준발음이 통용되는 경우도 있다.

38) 임홍빈(「사이시옷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어학』 10, 국어학회, 1981, 1~35쪽)에서 '파격' 해소의 대상은 '통사적 구성'이다. 그러나 2자어는 대부분 한문 기원이어서 '통사적 구성 파격'으로는 변별성이 없다.

와 앞말과의 경계가 인지되었던 것이다. 물론 내부경계 인식은 앞말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어서 2자어보다 3자어에서 주로 일어나지만,[39] ㅅ전치성이 거의 완결 단계인 '價, 權, 法'류의 한자는 3자어뿐 아니라 2자어에도 결코 적지 않다. 경음화3을 보이는 {X+A}는 합성어로 해석되고, 고유어에서 요구하는 형태론적 조건에 부합함을 알 수 있다.

3. 문체 변화와 음운현상

이 장에서는 기층한자어와 상층한자어의 적층구조가 문체 변화의[40] 결과임을 밝히고, 문체 변화로 인한 한자어 적층구조와 음운현상 간의 대응 양상에 대해 논의하겠다.

1) 문체 변화

다양한 변주를 만들며 이행한 문체 변화는 직선적이지도, 경계가 명확한 것도 아니나 '한문>국한문혼용>국문'의 순으로 큰 흐름을 이루었고, 시대 변화, 문자 선택과 궤를 같이한다. 문체 변화를 시간 축에 함께 놓고 보면 서로 중첩되지만, 국한문혼용이 주류를 이루었던 개화기를[41] 기준으로 전기는 한문이, 후기는 국문이 문어의 주류를 이루고, 한글이 점차 한자를 대체한다. 한자어 적층구조는 이러한 문체 변화의 결과이다. 상층한자어는 한문 생산이 거의 끝난 국한문혼용기 이후부터 생성된 것으로, '曳引船'처럼 기층한자어인 '曳船, 曳引'의 용법을 그대로 따르면서 다음절화만 진행된 것이 대부분이지만, '法, 權, 科, 格, 病, 證'처럼 한문에서는 없던 새로운 용법이 등장하여

39) 내부경계는 한자어보다 '통자, 로마자'와 같은 혼종어일 때 더 쉽게 인식될 것이다. 사전에 등재된 'X字' 혼종어는 47개였는데, 표준발음이 [자]인 것은 '갖은자, 군자, 씨자, 어미자, 외자, 이은자' 6개뿐이었고, '외자'를 제외하면 사용빈도는 극히 낮은 단어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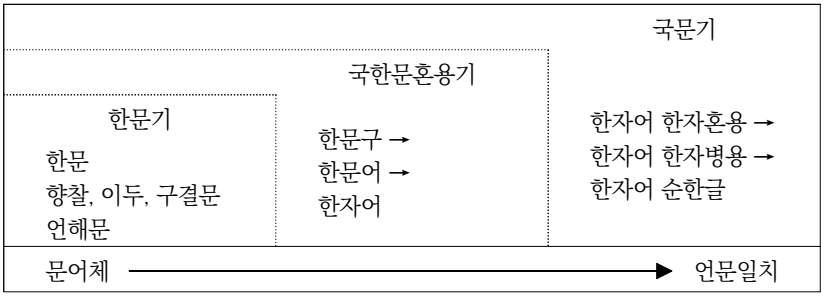
40) 여기서 문체는 심재기(『국어어휘론』, 집문당, 1982, 215쪽)의 "문학적 개념인 style이 아니라 한 언어사회 전반에 통용되는 사회적 문장양식"을 뜻한다.

41) '개화기'는 '근대적 사회로 개혁'과 같은 가치 평가적 정의와는 상관없이 단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무렵을 뜻하는 시기적 개념으로 썼다.

세를 확장하기도 했다.

한문체가 주류이던 시기에는 독자층에 따라 한문과 한글로 사뭇 뚜렷하게 나뉘었던 것과 달리, 개화기 신문, 잡지와 같은 매체 시장이 형성되고, 시장은 이념, 자본, 정치 모든 면에서 최대한 독자층의 확대를 꾀한다. 예컨대 성경 번역, 동일 신문 내 지면이나 문종별 문체 차이, 민족어에 대한 각성과 언어정책 등은 문어 향유층의 확대를 추동하였다.[42] 이에 부응하는 선택은 한글 선호였고, 구어와 통사적 일치도를 높이고 언문일치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언문일치는 문자언어와 음성언어 간 가역성을 뜻하는데, 문어와 구어가 완전히 일치하는 시대는 없다. 그러나 텍스트를 보지 않고 듣기만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의 말과 글의 일치를 지향하였다.

〈표 6〉 문체 변화와 한자어



〈표 6〉에서 '한문, 국한문혼용, 국문기'는 시대에 따라 어느 한 문체가 압도적 주류를 형성했음을 뜻하지, 그것만 쓰인 시대는 적어도 중세 이후로는 없었다. 한문이 문어의 주류이거나 유일 수단이던 시대에도 借字表記法으로 일부이든 전체이든 한문의 국문화 시도가 있었던 것처럼 한문의 구어화는 일찍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도 한글로 언해문이 생성되었고, 소설류처럼 한문과 관계없이 애초에 한글로 창작되어 구어체로 변환해도 손색이 없는 글

42) 유경민, 「국한혼용문 성경과 현대 한국어 문체의 상관성」, 『반교어문연구』 38, 반교어문학회, 2014, 163~193쪽. ; 김재영, 「'대한민보'의 문체상황과 독자층에 대한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40, 한국문학연구학회, 2010, 265~308쪽. ; 이준식, 「최현배와 김두봉」, 『역사비평』 82, 역사비평사, 2008, 41~67쪽.

도 존재했다.

'한문>국한문혼용'으로의 이행은 언문일치를 꾀하기 위해 한문의 통사구조를 버리고 구어 문법을 따르는 대신, 어휘 차원에서는 한문의 구나 절을 구어에서도 사용 가능한 한자어 형태로 대거 편입하는 과정이었다. 따라서 한자를 혼용하든, 병용하든, 한글전용이든 한자어는 국한문혼용이 아니라 문자만 혼용이다. 요컨대 기층한자어는 상층한자어보다 형성시기 면에서 앞서고, 국문보다 더 오랜 시간 문어로 기능했던 한문에서 사용되던 구절이 단어화한 것이고, 구어로 쓰이면서 대부분의 음운현상은 고유어 질서에 융합되었다.

'국한문혼용'에 대한 사전 정의는 '국문에 한자를 섞어 쓴 문체'이다. 이는 어순을 비롯한 문장의 통사구조가 한문이 아니라 국문임을 뜻하고, 대체로 개화기 무렵의 다양한 문체 실험을 포괄한다. 국한문혼용에는 다양한 결이 혼재한다. 현토 한문에서 토 앞의 표현을 '한문구, 한문어, 한자어'로 나누기도 했는데,[43] '한문구'는 한문에 토를 단 구결문에 가깝고, 1자어가 빈발하는 '한문어'는 구어체로 쓰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자어와 다르다. '한문구, 한문어'는 구어에서 쓰기 어렵지만, '한자어'는 구어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국한문혼용기, 국문기는 처음부터 구어로도 사용 가능한 상층한자어가 대량 유입·생산된 시기이기도 하다. 3자어가 상층한자어의 주류를 형성하게 된 것은 문자 정보 없이 구어로도 사용하기 위해서 지나친 동음이의를 막고 의미를 명확히 해야 했기 때문이다. 사전에 '수사' 등재어가 26개나 되는 것처럼 고유어보다 음절구조가 단순한 한자어는 동음이의어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功者와 功勞者, 果樹와 果實樹, 曳船과 曳引船, 運船과 運搬船은 유의어지만 3자어가 압도적으로 선호되는 것은 다음절화가 의미를 명확히 하는 데 더 유용하기 때문이다.

2) 문체별 한자어 적층구조와 음운현상

한자어는 형성 시기나 한문 기원 여부와 상관없이 명사로의 품사 편중이

43) 홍종선, 「근대 전환기 개화 지식인의 '국문/언문'에 대한 인식과 구어체 글의 형성」, 『우리어문연구』 54, 우리어문학회, 2016, 289~320쪽.

극심하다는 점에서 공통적이고, 이는 차용어적 특성이다.[44] 「1」에서도 93.12%, 「2」에서도 92.88%, 본고에서는 94.33%가 명사였다. 한문의 일부를 구어로 쓰는 대표적 방법은 조사를 붙여 명사로 운용하거나, '-하다'를 붙여 술어로 쓰는 것이다. 한자어 품사가 명사에 편중되고 그 다음이 어근(4.75%)인 것은 이 때문이다. 본고는 물론, 「1」, 「2」에서도 명사와 어근 이외의 품사는 2% 미만에 불과했다.

음운현상도 고유어와 완전히 일치하는 1류 발생률이 「1」은 52.34, 「2」는 57.62, 본고는 54.74%로 절반이 넘었는데, 이는 상층한자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2류 음운현상은 「1」에서는 46.27, 「2」는 39.97, 본고는 42.69%로 적잖은 발생률을 보이지만, 주된 동인은 ㄹ로 인한 단일 요인이다. 'ㄹ두음법칙, 역행적 유음화, ㄹ비음화'는 모음 사이가 아니라면 조음 난도가 높은 [r]을 회피하기 위함이면서 'ㄹ'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없는 고유어 질서에 따른 것이다. 「1」, 「2」와 본고에서 다룬 한문은 문헌 작성자의 구어도 다르고 문헌 간 시공 격차도 상당하지만, 음운현상은 대단히 균질적이었다. 이러한 균질성은 한자문화권에서 한문이 공통문어였음을, 음운현상의 대부분이 고유어 질서를 따른 것은 한자문화권에 통일된 한자 독법이 없었고 민족어별 특성을 따랐음을 뜻한다.

한자어 적층구조로 인한 특징적 차이는 자수로서, 기층한자어는 2자어가 압도적 다수를 형성한다. 본고는 96.49%, 「1」도 93.31, 「2」도 96.31%가 2자어였다. 사전 등재 한자어도 2자어가 최대 다수이다.[45] 기층한자어가 2자어를 기본으로 하는 것은 한자는 실질형태소라 해도 대부분 자립성이 없어서 자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예컨대 「2」에 따르면 '監視, 貫通, 幾微, 反復, 方向, 相助, 折斷, 憎惡, 至極, 創造, 遷移, 親近, 皮革' 등은 『論語集註』에서 '監視也'의 형태로 字釋되고, '監은 視也라'로 현토되는 문장이었다. 이렇게 생성

44) 그러나 음성과 의미를 차용하는 외래어와 달리, 한자어는 문자와 의미를 차용한다. 이는 한자의 표의문자적 성격과 함께, 한자문화권은 로마자문화권과 달리 서로 어족이 다를 만큼 구어가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45) 사전 '자세히 찾기'로 조사한 결과, 1~4자 한자어 중 2자어가 101,497개(53.93%)로 가장 많고, 3자어 61,464개(32.66%), 4자어 22,6502개(12.04%) 순이었다. 1자어는 성씨와 같은 고유명사, 어근, 접사까지 포함된 것인데도 2,591개(1.38%)로 가장 적었다.

된 2자어는 태생적으로 유의 한자의 결합이고, 의미 때문이라기보다 단어로서 자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합이다. 1자 명사가 대개 2자어로 대치되었다는 것도 문체의 현대성 판별 준거 중 하나이나[46] 한자어에 유의 한자가 병렬된 '獲得, 親近'류가 적지 않음은 1자어의 2자어화는 훨씬 일찍부터 진행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지금은 1자어가 새로 생성되지도 않고 1자어의 2자어화는 거의 완결 상태이다.

본고뿐 아니라 「1」, 「2」의 자료에서도 기층한자어 중 3자어 발생률은 3%도 되지 않았다. 「1」, 「2」에서는 4자어가 3자어보다 거의 배로 많았는데, 본고의 자료에서는 근소한 차이이긴 하나 3자어가 82개(1.93%)로 4자어(57개 1.34%)보다 오히려 많았다. 이런 점에서 3자어는 소수이긴 하나 더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9) 가. 發見-者, 有德-者, 在外-者, 破產-者, 好事-者.(5)
나. 不可-解, 相見-禮, 數-十萬, 十二-月, 第一-流, 至-于今, 此等-事, 千萬-世, 千萬-人 / 大不敬.(10)
다. 未嘗不, 不可不, 不得不, 不得已, 形而上, 形而下.(6)

고유명사가 아닌 3자어는 (9)의 21개가 전부였다. (가)처럼 'X者' 형태의 3자어는 「1」, 「2」에서도 발견되었는데, '-者'는 〈~하는 것/사람〉의 뜻으로 한문은 물론 한자어에서도 순서가 고정되어 쓰이는 몇 안 되는 예이다. (가, 나)와 달리[47] (다)는 사전에 내부분석 없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未嘗不'처럼 부정어가 겹쳐 있거나 '似而非'처럼 문법형태소를 단어 내에 품고 있어서 직접성분분석이라는 방법 자체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이런 구조로 현대에 신어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 (다)는 한문의 구절이 그대로 단어화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46) 한영균, 「國漢 混用 文體의 定着과 語彙의 變化－'單音節 漢字+하(ᄒᆞ)-'형 용언의 경우」, 『국어학』 51, 국어학회, 2008, 246~253쪽.
47) (9나)의 大不敬은 뜻풀이와 '不敬'이 등재어임을 보아 '大-不敬'으로 분석된다.

⑽ 가. 景福-宮, 經筵-官, 軍資-監, 勤政-殿, 料物-庫, 寶文-閣, 司馬-試, 司憲-府, 三司-使, 尙瑞-司, 書雲-觀, 十二-徒, 陰陽-科, 典樂-署, 中書-省, 中樞-院, 春秋-館, 通禮-門, 平章-事(37)
나. 金剛-經, 楞嚴-經 / 赤松-子 / 經國-典, 大明-律, 授時-曆(7)
다. 卿-大夫, 大-司徒, 同-進士, 士-大夫, 上-將軍, 右-政丞(17)

(10)은 3자어 중 고유명사의 일부인데,[48] 3자어의 74.39%가 고유명사였다. 한문에서 3자는 기본적으로 문장 구성이기에 기층한자어에 3자어는 극히 드물다. 그런데『三峯集』출현 한자어를 분석한 결과, 고유명사가 3자어 출현의 본진 역할을 하고 있었다. (가, 나)는 '2+1'자로, (다)는 '1+2'자로 복합어임을 사전에서도 명시하고 있다.[49] (가, 나)에서 '-官, -館, 科, 署, 經' 등은[50] 현대국어에서도 3자어를 생성하고 경음화3을 보일 가능성을 가진 말이지만, '科'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한문의 의미와 다르지 않고, 경음화3과도 무관하다. 어말 자가 閣/-閣, 監, 經, 庫, 觀, -館, 官/-官, 宮, -徒, 府, 使, 司, 事, 署, 試, 子, -者, 典, -殿인 사전 등재 한자어 중[51] '饌庫[-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자수와 상관없이 경음화3과 무관하다.[52]

수의성과 불규칙성으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한자어 음운현상은 'ㄴ+ㄹ'에서 역행적 유음화와 비음화, ㄴ첨가, 경음화3이다. 'ㄴ+ㄹ→[ㄴㄴ]'는「1」,「2」와 본고에서 살핀 총 261,385자의 한문 중 단 한 단어만 발견되었다.

48) 사전 일러두기에는 '전문어와 고유명사에는 해당 전문 영역을 표시하였다'고 명시하였다. (10가, 나)는 건물명, 관직명 등인데 모두 '역사'로, (나)는 빗금을 경계로 각각 불교, 문학, 책명으로 해당 전문 영역이 표시되어 있다.

49) (10다)류에는 中郎將과 高句麗도 나오는데, 중랑장은 뜻풀이와, 郎將이 등재어임을 보아 中-郎將으로 분석된다. '高句麗'는 '句麗'와 유의어이다.

50) 사전에는 '-官, -館'은 접미사, '科, 署, 經'은 명사로 되어 있다. 한문에서는 '官, 館'도 명사로 쓰였지, 접미사적 용법은 없었다.

51) 閣/-閣 129, 監 248, 經 375, 庫 128, 觀 215, -館 131, 官/-官 631, 宮 264, -徒 120, 府 221, 使 330, 司 254, 事 721, 署 132, 試 85, 子 1128, -者 1534, 典 231, -殿 143개가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52) (10가)의 '閣, 監, 庫, 科, 官, 觀, 館, 宮, 徒, 府, 事, 使, 司, 署, 省, 試, -殿', (10나)의 '經, -子, 典', (9가)의 '-者'는 조건이 충족되면 경음화와 경음화2는 규칙적으로 적용된다. '判決事, 監察司, 七佛寺, 警察署, 被殺者, 巡察使' 등의 예로 보아 3음절 이상에서도 경음화2는 규칙적으로 적용되었고 예외는 발견되지 않았다.

ㄴ첨가 적용 예는 표준발음 기준으로는 4자어뿐이었고, '공명자음+j' 연쇄의 2자어에서 ㄴ첨가는 수의적이었다. 따라서 이 둘은 기층한자어에서는 규칙으로 보기 어렵다. 'X科, X格'처럼 경음화3을 보이는 한자어는 한문에는 없었던 의미를 획득했다는 점에서 기층한자어 대비 신어이고, 국한문혼용기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단어들이다. 경음화3의 완결성은 공시적으로는 어말에 동일 한자 형태소를 공유하는 한자어의 생산성에 따라 편차를 보이고, 통시적으로는 {X+A} 용법이 사용된 역사가 충분한가도 확산 정도에 관여한다.

세 현상은 모두 상층한자어에서 시작·확산되고 있고, 한자어 적층구조에 따른 음운현상의 차이로 해석된다. 이들은 모두 단어 내부경계를 요하는 현상인데, 한자어의 내부경계에 대한 판단은 국문 시대 화자 간 편차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수의성도 높다.

생성 시기나 사용자를 고려했을 때, '入덕, 得템, 無플'과 같은 신어의 조어 기준은 漢文法이라기보다 '入學, 得男, 無力, 製絲'와 같은 기층한자어일 것이다. '無맛, 無個性, 製빵' 등과 같은 단어도 기층한자어를 기준으로 생성된 것이다. '讀書, 有罪'처럼 순서가 고유어와 달라도, 유사구조의 한자어 다수가 어휘장을 이루고 있고, 그 안에 사용빈도나 생산성이 높고 의미가 투명한 한자어가 있으면[53] 이것이 국문 시대 언중들이 신어를 만드는 기준이 된다. '有-, 無-, 不-, 未-, 非-, 反-'으로 시작하는 신어들도 3자어든 2자어든 기층한자어의 형태소 배열 순서를 따른다.

한글 전용으로의 문체변화 외에도, 한자어 체계 내에 유의 한자의 결합인 '監視'류, 1자 1형태소의 기능이 없는 음역어 등의 존재로 인해 한자는 '1단어>1형태소(어근/접사)>1음절'로 변화하면서 형태소성이 약화되고, 한자어는 점차 다음절화하여 3자어 선호가 뚜렷하다. 그러나 'X科, 無X' 등 어휘장의 계열관계에 근거하여 한자의 형태소성이 복원되고, 이들은 조어력을 발휘

53) 생산성은 몇 개 이상의 단어가 있으면 생산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상대적이다. 또한 단어 개수의 多寡라는 양적 기준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빈도가 높은 일상어에는 가중치가 부과되는 질적 기준도 언중에게 해당 한자의 형태소성을 인식하게 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한다. 이처럼 한자의 형태소성은 한자나 한문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어휘장의 관계망에 따라 복원 가능하고, 기층한자어는 그 기준 역할을 하고 있다.

4. 맺음말

필자는 '高價, 最高價'와 같은 한자어 형태론과 음운론이 안고 있는 난제의 근본적 원인이 문체별 한자어의 적층구조에 있다고 보고, 기층한자어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본고는 연구목적과 방법에 있어 그 연속선상에 있다. 『三峯集』을 대상으로 한문 기원임을 확증한 한자어를 대상으로 음운현상을 분석하고, 앞선 연구와 비교·종합하여, 음운현상의 원리를 밝히고자 했다. 아울러 문체 변화로 인한 한자어의 적층구조와 음운현상 간의 상관성을 논의했다.

'한문>국한문혼용>국문'으로의 문체 변화는 '구어'와의 일치를 도모하는 과정이었기에 한문의 통사구조는 유지될 수 없었지만, 대신 한문의 구절을 한자어 형태로 대거 국문에 포함시켰다. 기층한자어 음운현상은 구어화하면서 대부분 고유어 질서에 통합되었다. 한자어에만 적용되는 현상 중 ㄴ두음법칙(2.31%)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한자음 'ㄹ'로 인한 것이었고, 'ㄹ 외 자음+ㄹ' 환경의 음운현상은 이런 음운 연쇄가 없는 고유어 제약을 따른 것이기도 하다. 앞선 두 연구에 비해 높은 출현율을 보인 3자어 중 74.39%가 고유명사였다. 이들 3자어는 지금도 여전히 생산성을 지닌 조어구조인데, 경음화3과는 무관했다. 이는 자수가 한자어 적층구조로 인한 결과적 특징이긴 하나 경음화3의 원인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ㄴ+ㄹ→[ㄴㄴ]' 예는 거의 전무했는데, 앞말의 자립성 유무를 기준으로 역행적 유음화와 영역을 달리하므로 '2+1'자로 분석되는 3자어 부족과 유관하다. 반면 경음화3의 확산을 주도하는 일차적 요인은 앞말의 자립성이 아니라 뒷말을 실사로 인식하는가이고, 이는 고유어와 형태론적 조건을 일치시키는 방향이다. 경음화3에 합류하고 있는 어말의 '法, 權, 科, 格, 病, 證' 등은 기층한자어 대비 새로운 의미 용법으로 쓰인 것이다. 음운적으로는 규칙적 경음

화형의 존재, 어휘적으로는 뒷말을 공유하는 합성명사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경음으로 발음형이 통일되고 있다. ㄴ첨가는 '공명자음+j'라는 음운 조건만 충족되면 수의적으로 실현되고, 형태론적 조건은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ㄴ첨가의 수의성과 불규칙성은 기층한자어가 가장 높고, 상층한자어, 고유어 순이다. 이는 단어 내부경계에 대한 언중들의 판단이 기층한자어에서 가장 유동적임을 뜻한다.

ㄴ+ㄹ→[ㄴㄴ], ㄴ첨가, 경음화3은 한자어 음운론, 형태론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다. 고유어에서도 불규칙한 경음화3은 물론이고, ㄴ+ㄹ→[ㄴㄴ]는 3자어 부족, ㄴ첨가는 높은 수의성 때문에 기층한자어에서는 음운규칙으로 보기 어렵다. 이들은 복합어라는 형태론적 조건을 요하므로 국문 시대에도 내부경계가 뚜렷이 인지되는 3자어가 진원지였을 것이고 상층한자어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기층한자어로 소급·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 한자어는 두 층위가 섞여 있고, 문체 변화로 인해 한자의 형태소성이 약화되면서 내부경계에 대한 화자별 판단 차이가 크고, 이것이 수의성과 불규칙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2자어의 내부구조가 고유어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국문법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기층한자어에서 2자어 비중은 필자의 세 논문의 자료분석에 따르면 최소 93%였고, 한자어 체계에서 대략 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고, 한자를 활용한 신어 생성에서도 기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현대국어 한자어 문법의 遠因이자 近因으로 기능하고 있다.

본고는 한자어 형태음운론에서 기층한자어와 상층한자어로 층위를 구분해서 보는 새로운 관점, 음운현상을 통해 이런 관점의 효용성 입증, 한문을 자료로 활용하여 기층한자어임을 확증하는 연구방법 제시를 연구 의의로 삼는다. 그러나 본 논의는 한정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이고, 귀납적 자료 기반 연구로서의 한계를 지닌다. 음운현상의 조건이 되는 기층한자어 조어법에 대한 고찰, 다양한 장르와 시기의 조선 한문을 대상으로 한 자료 확대 등은 향후 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1. 논저

김유범·박선우·안병섭·이봉원,「ㄴ삽입 현상의 연구사적 검토」,『語文論集』46, 민족어문학회, 2002.

김재영,「'대한민보'의 문체상황과 독자층에 대한 연구」,『현대문학의 연구』40, 한국문학연구학회, 2010.

김창섭,「'-적(的)'의 두음 경음화와 2자어 3자어론」,『국어학』68, 국어학회, 2013.

노명희,「한자어 형성과 기능 단위」,『한국어 의미학』43, 한국어의미학회, 2014.

배주채,『한국어의 발음』, 삼경문화사, 2003.

_____,「한자 '病'으로 끝난 단어들의 조어법과 경음화」,『한국문화』98,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22.

신성철,「ㄹ비음화의 통시적 고찰」,『한국언어문학』102, 한국언어문학회, 2017.

심재기,『국어어휘론』, 집문당, 1982.

양순임,「한문 기원 한자어의 음운현상에 관한 계량적 연구-四書를 중심으로」,『국어학』107, 국어학회, 2023.

_____,「기층한자어 음운현상 연구-朱熹의 四書集註 출현 한자어를 대상으로」,『우리말연구』76, 우리말학회, 2024.

오용섭,「'三峯集'의 간행과 편성」,『서지학연구』48, 한국서지학회, 2011.

유경민,「국한혼용문 성경과 현대 한국어 문체의 상관성」,『반교어문연구』38, 반교어문학회, 2014.

유정민,「한자문화권과 양층 언어(diglossia)의 문제」,『어문연구』47(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9.

이상복,「국어의 형태소 분석에 대한 일고찰(1)-고유명사를 중심으로」,『배달말』50, 배달말학회, 2012.

이익섭,『국어학개설』, 학연사, 2011.

이준식,「최현배와 김두봉」,『역사비평』82, 역사비평사, 2008.

임홍빈,「사이시옷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국어학』10, 국어학회, 1981.

정인호,「ㄴ첨가 관련 현상의 방언 비교」,『방언학』10, 한국방언학회, 2009.

조성문,「ㄴ첨가의 세대별 실현 양상에 대한 분석」,『한국언어문화』71, 한국언어문화학회, 2020.
주지연,「韓國語 漢字 形態素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1)-2字語 構成 要素의 形態素 지위를 중심으로」,『어문연구』45(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7.
최윤지,「자립명사로 발달하는 한자어 파생접미사에 대하여」,『형태론』10(2), 형태론, 2008.
최현배,『우리말본』, 정음사, 1929/1986.
한명숙,「신어에서 나타나는 /ㄴㄹ/ 연쇄의 발음 양상 연구」,『한말연구』50, 한말연구학회, 2018.
한영균,「國漢 混用 文體의 定着과 語彙의 變化－'單音節 漢字+하(ᄒᆞ)-'형 용언의 경우」,『국어학』51, 국어학회, 2008.
홍종선,「근대 전환기 개화 지식인의 '국문/언문'에 대한 인식과 구어체 글의 형성」,『우리어문연구』54, 우리어문학회, 2016.
Coetzee, Andries W., and Joe Pater, The place of variation in phonological theory, *The handbook of phonological theory*, 2011.

2. 기타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검색일 : 2025. 1. 3.)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검색일 : 2024. 6. 30.)

〈Abstract〉

Phonological Phenomena of Sino-Korean Words
- With『三峯集』as Data -

Yang, Sun-Im

This paper's research objectives and methods are consistent with my previous research. This paper aimed to explain the principle of the phonological phenomena for Sino-Korean words originated from Hanmun. I also discuss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cking structure of Sino-Korean words and phonological phenomena. Most of the phonological phenomena were completely incorporated into the native words. For example, the chain rules of 'C(except ㄹ)+ㄹ', which appear only in Sino-Korean words, also comply with combination restrictions that do not exist in the native words.

The change in style was a process of promoting agreement with colloquial language. In the process, two-syllable phrases in Hanmun were converted into words. Most of the three-syllable words collected in this paper were proper nouns. 'ㄴ+ㄹ→[ㄴㄴ]', glottalization3, and ㄴinsertion all require the morphological condition of being a complex word and are highly irregular. This is because the morpheme qualification of each syllable is weakened due to stylistic changes as a result, the morphological analysis within Sino-Korean words is fluid depending on the speaker.

* Key Words: Sino-Korean words, two-syllable words, phonological phenomena, style, Hanmun

·**논문투고일**: 2025년 9월 5일 ·**심사완료일**: 2025년 11월 12일 ·**게재결정일**: 2025년 11월 26일